

朝光 - 1936. 10. 01.

## 哲學의 理念과 그 現實行程 (……어떤 어린 벗에게 보내는 글……)

金基錫

親愛하는 벗.

現代는 어느 意味에 있어서 哲學의 喪失의 時代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만치 人間의 思惟란 것이 顛落된 時代가 있었습니까. 思惟에 대한 行動, 理論에 대한 實踐, 觀念에 대한 現實이 모든 領域에 있어서 몹이 高調됩니다. 運動에 運動에 現代의 思惟 및 論理는 세차게 이 運動의 領野에 달리고 있습니다. 모도들 運動에 있어서 把握해야한다. 運動에 있어서 理解해야 하고 究明해야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現代思潮의 根本動向입니다.

運動의 優越. 運動의 謳歌. 잠잠한 思辨 高요한 觀想을 일삼던 過去의 哲學은 이난 대없는 회오리바람에 물리이면서 世界에 대한 根源的 理解를 企圖하는 그자신의 한 개 아름다운 꿈이 여지없이 깨여지는 것을 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運動. 그런데 이 運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行動이니 實踐이니 하는 것이 이 運動과 어떻게 역매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들이 運動이면서도 기실 단순한 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 내이는 것이겠습니까.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說明하야마치려는 現代의 根本傾向이 傾向은 過去의 觀念論 또는 觀想主義를 否定은 할지언정, 思惟 그 自體 哲學 그 自體를 집어 치우는 것이 되야서는 않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哲學의 危機이니 哲學의 崩壞이니하야 마치 이 앞으로는 哲學이란 것이 人間이 가지는 文化的 領野속에서 그 存在의 權利를 喪失하는 것같이 보는 이들이 있음은 어떻게 된 세음입니까.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본다고 할 때 이「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본다」가 어느 意味의 理解乃至體驗이 아니겠습니까. 理解와 體驗. 이것은 벌써 思惟 또는 哲學이 자라나는 한 개 살진 原野입니다. 이「보려는」要求이「보

려는」要求가 人間生活의 한 개 眞實한 衝動일진대 사람은 哲學이란것을 길  
이 拋棄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現代에 이르러서의 『運動의 論理.』이것은 분  
명히 哲學 그 自體의 止揚이 아니라, 새로운 哲學에의 探求, 志向 및 그 建  
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보려는 態度. 이 態度는 哲學이란 것을 집어 치우는  
것 아니고 이 그 자신 한 개의 哲學的 立場을 構成하는 것이 됩니다. 『運動  
의 學』또는 『現實의 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개의 哲學的 立場을 構成하  
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哲學이란 본대 어느 意味의 反省이 아니겠습니가.  
말하자면 運動의 뒤에 오는 어느 意味의 省察이 아니겠습니가.

무론 哲學은 본대 『哲學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哲學하는 일』이란 그 자  
신 분명히 한 개의 作用 또는 運動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은 哲學  
을 곧 단순한 運動으로 생각할 길이 있겠습니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때 물이나 바람이 哲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가. 꽃이 피고 나무가 움  
어 진다고 해서 그때 꽃이나 나무가 哲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가. 哲學이 그  
자신 움직이는 性格을 가진다고 해서 움직이는 一切의 現象이 곧 哲學이 되  
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에서 내가 회오리바람이라고 부른 오늘의 『運動의 論理』란 것을  
더 퍼놓고 反對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過去의 觀念論, 思辨哲學을 힘  
있게 깨트린 데서 나는 哲學에 대한 그 貢獻조차를 是認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 觀念論을 깨트린 『運動의 論理』가 觀念論을 깨트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哲學 그 自體를 집어치우려고 대어 드는 僭越한 그리고 無謀한 「  
거조」를 보아 주세요. 오늘의 『運動의 論理』가 哲學이란 것을 집어치웠다 합  
시다. 어떻게 하여서 무엇으로 哲學을 집어 치웠겠습니가. 그 자신의 論理로  
써 哲學을 집어치우는 論理. 이것은 어느 意味의 哲學을 집어치우는 哲學 |  
아니겠습니까.

× ×

哲學은 분명히 모든 時代를 通하여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무로 「心臟」을 가진 「머리」가 되어야하고 부단히 「心臟」과 속삭이논 「머리」가  
되어야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一部の 사람들은 「心臟」만 가지고 일이 된  
다고 하지 않습니가. 「心臟」만을 가지고 「머리」는 집어치워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가.

오늘의 『運動의 論理』는 너무도 運動的인 아하 너무도 運動的인 方向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앞에서 哲學이 어느 意味의 反省이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보려는 態度가 그 자신 한 개의 哲學的 立場을 構成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의 『運動의 論理』는 그것이 行動的이기전에 먼저 思惟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도를 運動에있어서 보고 또 보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運動이란것이 觀念 또는 假想이 아니고 存在의 世界가 그 속에서 構成되는 客觀的 現實일진대 『運動의 論理』는 분명히 그 자신을 한 개의 眞實한 立場으로 主張할 權利를 갖습니다.

그러나 『運動의 論理』가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보자고 가르치기 전에 그것은 먼저 그 자신이 내여 세우는 運動이란 것을 깊이 反省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남을 가르치는 한 개의 行動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根本現實로서의 運動을 바로 思惟規定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사로 돌라 보아 한 개의 哲學的 立場으로서의 자기를 길러 나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現實主義가 즐겨 쓰는 運動, 現實, 行動, 實踐이니하는 많은 말들이 또 그 말들이 가르치는 存在 및 事象이 결코 조금도 理解 또는 闡明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

哲學에의길. 나는 벌써 이 길에 발을 드러 노았습니다. 좋거나 언짢거나 나는 이 길을 예어 나아가는데 뿐 있어서 내 자신을 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哲學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 오늘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哲學의 길을 거러 나아갈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哲學이 어느 意味의 思惟임을 알고 이 思惟란것이 行動과함께 또는 行動과 어울리면서 人間의 生活이란 것을 構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思惟와 行動의 不斷한 相互浸潤. 그리 하여 建造되는 理解와 體驗의 世界.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文化이니 歷史이니의 眞實한 地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哲學의 길을 거러 왔습니까. 그리고 人間思惟의 源流를 構成하는 이 哲學의 흐름이 얼마나 많은 迂廻, 屈折을 츠려 내려 왔습니까.

나는 希臘哲學의 立場, 獨逸哲學의 立場같은 것을 생각해보다가 그 限界의 구차스러움을 웃으면서 내스사로 었던 深遠한 哲學體系를 세워야한다는 한 개 아름다운 理想에 가슴을 설레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哲學이란것이 줄넘기나 까막 잡기와 같은 것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 나아가야하는 人間生

活의 한 개 眞實한 實踐이요. 實現이라고 보는데서 나는 풀없이 한편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쫓는 내 자신을 發見합니다.

生活에서 遊離된哲學. 이런哲學이 있겠습니까. 哲學徒도 역시 다른 모든 文化의 領域에있는 이들과 같이 哲學徒가 되기 전에 먼저 한 개 眞實한 生活 人間性의 崇嚴한 發現. 이것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에 압서 오히려 그것보다 세차게 우리들의 가슴을 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哲學은 결국 이 人間生活의 가장 빛나는 한편을 代表한다고 보여 집니다.

哲學은 단순한 解說, 註釋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哲學은 그 자신 어느 意味의 生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에 와서도 오히려 사람들은 哲學을 어떤 어려운 學問에 대한 研究 또는 批判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론 哲學에 대한 研究 및 批判이라고해서 哲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哲學은 存在 및 事實을 思惟해야하고 이 存在 및 事實의 世界란것을 그 根源性에 있어서 바로 解明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칸트의 哲學이 存在의 認識을 課題로 하지 않고 存在의 認識에 대한 認識을 課題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哲學者로서의 칸트의 根本意圖를 바로 헤아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存在에 대한 思惟. 이것이 哲學을 오늘의 顛落에서 救援하는 哲學本來의 途程입니다. 哲學은 어디까지던지『哲學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哲學하는 일』이란 一切의 事象을 그 根源性에 있어서 깊이생각해야 드러 가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 ×

사람은 理性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부단히 무엇을 思惟하려는 한 개누를 수 없는 要求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思惟를 爲하여 진실로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存在, 運動, 時間, 無, 人間, 社會, 文化,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자기에 대한 理解를 人間의 思惟에 향하여 要求하는 모양으로 부단히 무어라고 속삭이다 싶이 우리들에게 대어 듭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단순히 무엇을 그때그때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즐기차게 생각해야 드러가 어떤 한 개의 體系 밑에서 그 存在 및 根據를 究明하는 한 개 고생스러운 過程. 이리하여 世界에 있어서의 人間存在의 意義를 밝히고 나아가 人間生活의 根本理念을 가르치는데서 哲學은 그 자신의 眞實한 課題를 遂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무론 過去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人類의 思想史에 오른 많은 作品을 특히 많은 哲學的 作品을 읽어야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어디까지 던지 깊이 생각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넓게 읽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讀書와 思索과 著述. 이것은 文化의 領野에서 일하려 논 이들로써 가장 정성 드려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이속에서 中心을 이루고 地盤을 이루는 것이 依然히 思索이 아니겠습니까. 哲學의 길을 거러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思索은 분명히 生活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이들이 마치 거름을 나르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양으로 우리들 哲學徒들은 存在란 것을 생각해야 하고 時間이란 것을 생각해야 하고 自然이니 歷史이니를 생각해야 하는 많은 일사감을 말합니다.

무론 우리들 자신 한 개의 存在인 한에서 다른 모든 存在와 함께 부단히 움직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久遠한 轉變속에 휩싸이면서도 자기 및 자기를 에워싼 것을 부단히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들은 단순한 運動과 구별되는 生活이란것을 가지게 되고 이 生活을 地盤으로 하고 그 위에 文化란 것을 싸혀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

哲學은 분명히 實在를 思惟해야하고 現實을 思惟해야합니다. 哲學解說, 哲學研究에 떠러진 오늘의 哲學을 救援하는 길은 哲學의 길에 드러서려는 우리들부터가 이 實在 및 現實을 思惟해야 힘 있는 데까지 그 眞實한 解明을 圖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哲學의 實在論的 또는 現實主義的 轉向을 代表하는 한 개의 哲學的 方法으로서 우리들은 辯證法이란 것이 있음을 想起합니다.

辯證法. 우리들이 理解하고 超越해야할 辯證法. 이 辯證法에 대한 批判은 아시다 싶이 모든 流派의 現代哲學에 대한 批判의 前提입니다. 그런데 이 辯證法에 대한 이약이가 나오면 자연 『헤-겔』의 哲學을 말하게 되는데 哲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神學이라고 불러야 할 한 개 이상한 哲學으로부터 現代의 思惟는 어떤 宿命에 가까운 因緣아래서 진실로 深大한 影響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려 말하면 나는 한 개의 哲學的 方法으로서의 이 辯證法이란 것에 대하여 反對합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의 生의 哲學이니 存在學이니 하는 것을 어느 程度로 否定하는 것과 같습니다.

辯證法은 말하자면 『運動의 論理』 또 『發展의 論理』라고 불러서 좋습니다. 辯證法은 어디까지던지 모도를 對立의 統一에 있어서 說明합니다. 이 이른바 對立의 統一은 『안지히』에서 『피르지히』로, 『피르지히』에서 『안운트피르지히』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그 자신의 遂行過程 또는 發展聯關같은 것을 보입니

다. 이 對立에 있어서의 統一. 이것이 일즉 『唯物論과 經驗批判論』의 著者로 하여금 『深刻!絶妙!』라고 부르짖게 한 辯證法의 根本構造입니다.

나는 辯證法이 특히『헤-겔』의 그것이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存在의 思惟에 대한 한 개 尊貴한 見解를 일부러 물러 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보아야 한다는 『헤라크레이토스』以來의 한 개이 오랜 見解는 분명히『헤-겔』의 辯證法을 通하여 그 생생한 빛을 現代의 思惟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存在에 대한 이 오랜 根源的 見解를 빼여 놓을 때 辯證法은 한 개의 假裝한 神學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 ×

辯證法은 자기를 「存在의 論理」뿐이 아니라 「存在의 運動」 또는 「現實의 運動」이라고 主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辯證法은 어디까지 던지 어떤 絶對者란 것을 想定해야하고 이 어떤 絶對者의 自己發展運動을 움직일 수 없는 眞理로 내어 세우게 되지 않습니다.

辯證法이 모도를 運動에 있어서 보자고 가르칠 때, 우리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무론 이 한개 眞實한 見解는 辯證法만이 가르치고 또 辯證法만이 마터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辯證法이 絶對者란 것을 가르치고 世界의 自己發展이란 것을 가르칠 때 우리들은 거기서 神學의 哲學的 改裝을 보게 됩니다.

存在가 모도 다른 것들과 얽매이면서 비로소 자기를 限定하는 한에서 이른바 어떤 絶對者란것이 있겠습니까. 絶對者로서의 精神 또는 絶對者로서의 物質이란 것을 우리들이 存在의 世界안에서는 차를 길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령 絶對的 精神 또는 絶對的 物質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一切의 存在를 支配 統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無와 마조서면서 그 자신을 無로부터 구별할 때 이 無와의「대중」에 있어서 이 無는 어느 편이 絶對者이겠습니까.

世界의 自己發展. 우리들은 이 發展이라는 한 개의 運動 또는 現實이 있다는 것을 否定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運動」은 분명히 發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發展과 發展아닌 것을 그 속에 싸는 훨씬 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運動이라는 한 개의 事實 또는 生成이 있다는 것을 否定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事實」은 분명히 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運動과 運動아닌 것을 그 속에 품는 훨씬 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辯證法이 眞理이고 아닌 것을 決定하는 것은 辯證法 自體가아니고 어디까지 던지 客觀的 實在 또는 客觀的 實在의 世界가 아니면 않습니다. 그런데

이 客觀的 實在 또는 그 世界가 辯證法的 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辯證法的 世界를 그 속에 가지는 말하자면 超 辯證法的 世界일진대 哲學의 方法으로서의 辯證法은 자기의 限界를 도라와 겸손하게 反省할 것이 아니겠읍니다.

× ×

한 개 조그만 「發展의 論理」란 것을 가지고 說明되야 마치기 전에는 우리들을 에워싼 客觀的 實在 및 그 世界는 분명히 너무도 깊고 너무도 멀고 너무도 아득한 것입니다. 對立을 말하고 統一을 말하는 변증법. 矛盾을 가르치고 契機와 止揚을 가르치는 辯證法. 이리하여 絶對的 理性 또는 根源的 物質의 久遠한 自己發展을 가르치는 辯證法.

이「運動의 論理」우에선 辯證法은 분명히 中世紀의 觀想的 神學 또는 哲學에 비하여 압서기가 千이요. 萬입니다. 그러나 世界를 運動 및 生成에 있어서 보아 내려온 現實主義의 根本立場을 바로 傳承해서야할 이 辯證法이 자기를 한 개「發展의 論理」로 주렸을 때 辯證法은 자기도 모르게 神의 世界計劃을 가르치는 神學에로의 轉向을 보였던 것입니다.

× ×

稀代の 野心家「나폴레옹」의 사나운 말발굽소리가 「프로시아」의 天地를 잡어 흔들 때 이 哲學者 아닌 哲學者「헤-겔」은 엇던 感激과 興奮속에서 한 개 汎神論으로서의 그 자신의 哲學의 體系를 더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개 巨大한 幻像을 바라보는 眞摯한 神學者「헤-겔」의 손에서 쓰여진 精神現象學, 이 이상한 運動속에서나 허진 述作은 「헤-겔」자신의 哲學의 또 現代哲學一般의 最大한 蹉跎인「뵘나파르트」的, 一新敎의 態度를 여지없이 代表하는 것입니다.

× ×

오늘의 一部の 사람들은 「헤-겔」의 辯證法을 轉倒식히는 일에 있어서 머리로선 「헤-겔」을 발로 서게 만든다고 떠듭니다. 그러나「헤-겔」이 찻재 머리로서 있는지가 問題이고 또 「헤-겔」이 理性 또는 精神이라고 부른 것을 단순히 物質또는 自然이라고 받도아 부른다고 해서「헤-겔」을 발로 서게 만들어지는 지가 問題입니다.

× ×

나는 오늘의 絶對 辯證法이란것은 唯物 辯證法의 그리고 오늘의 唯物 辯證法이란 것은 「헤-겔」의 辯證法의 한거튼 改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根本構造에 있어서 한 개의 神學또는 形而上學인 이 辯證法이란 것이 오늘의 사람들에게 깊이 받아 드러지는 것은 그것이 한 가지는 實在論的 傾

向을 가진과 한 가지는 世界를 運動의 原理에 있어서 理解하자고 권하는 때  
문이 아니겠습니까.

× ×

朝鮮에도 哲學의 길로 나아가려는 젊은 哲學徒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  
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立場에서면서 자기들의 哲學을 나아가  
朝鮮의 哲學을 樹立하게될 것을 나는 모릅니다.

× ×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文化란 것을 위하여 하로밧비 한 진  
정한 哲學 또는 한사람의 진정한 哲學者가 생겨나기를 빌고 있습니다. 獨逸  
보다 日本内地에 있어서 日本内地보다 朝鮮에 있어서 우에 말한 辯證法이란  
것이 또는 辯證法的 思惟란것이 아모런 批判없이 追從乃至俗化되는 오늘에  
있어서 이 問題많은 辯證法이 朝鮮의 어린 哲學徒들에게서 어느 程度까지  
理解, 超越될것인지가 자못 궁금합니다.

哲學 또는 哲學에 가까운 方面의 論文을 發表하는 이들로서 申南撤 田元  
培 朴致祐 朴鍾鴻같은 이들의 이름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哲學 研究  
會란것이 組織되었다는 말과 그 機關紙로서 「哲學」을 發行한다는 이야기를  
드른 것같으나 그 자세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 ×

日本の 哲學界는 最近에 와서 哲學研究時代로부터 어느 意味의 哲學創作  
時代에 드리선 것이 아닌가고 생각 됩니다. 무론 哲學에 대한 基礎研究를 等  
閑히 할 것은 아니나, 마치文學에서 作品行動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우  
리들 자신의 思索을 담은 論作을 내여놓아야 합니다. 日本學界에 있어서 여  
전히 西田哲學이 論議되고 또 立場에 따라 西田哲學을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日本哲學에 있어서 創作時代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의 한 새로  
운 時代를 現出식한 動力으로서 우리들은 西田哲學의 貢獻을 생각할 것이  
아닌가고 보여 집니다.

哲學에의 길은 본대 한 개荊棘의 길이요. 더욱 오늘의 이 땅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哲學의 建設은 진실로 많은 苦難과 싸워야하는 한 개 眞摯한  
人物을 要求합니다. 哲學도 역시 다른 모든 文化와 한 가지로 그것을 낫는  
사람의 生活 또는 人格에 있어서 그 값이 決定됩니다. 「소크라테스」나 「칸트」  
의 高潔한 生涯를 배호면서 한 개 진정한 哲學을 세워보려는 이는 없겠습  
니다.

七, 二八